

안 그래픽스
디자인·인쇄·싸인
모든 종류의 인쇄물 및 싸인 제작
안희탁 스티파노 404.717.9897

MASTER REALTY
김선민 요안나 부동산
404-285-6472
smkim@master-realty.com

Peachtree Physical Therapy
피치트리 물리치료 클리닉
470.238.3683 경 토니 (안토니오)
1300 Peachtree Industrial Blvd., #4108
Suwanee, GA 30024

FARMERS INSURANCE
자동차/집/사업체/건강
로렌 배 보험 (모니카)
470-282-1654
3775 Venture Dr. # M202
Duluth, GA 30096

SMILE 1 DENTAL GROUP
김세희 소화테레사 김상윤 요셉
스마일원치과 678-835-9550
1120 Peachtree Industrial Blvd, Suite 203, Suwanee, GA 30024

KELLER WILLIAMS
오현정 부동산
유리안나 Juliana Oh
Associate Broker
678-908-4945

리버밴드 오토
RIVERBEND Tire & Auto Service, Inc.
변대건 안드레아 404.663.7984
3322 Peachtree Ind. Blvd. Duluth, GA 30096 Office 770.623.5940

메디케어 / IRA / 연금 생명보험 / 오바마케어 한 재만 (그레고리오) 404-272-6157

배용자(루시아) 보험
생명보험 건강보험 은퇴연금 장기간호보험 뮤추얼 펀드
678-665-5400

VINEYARD REALTY
"부동산 과 용자를 한곳에서"
조셉김 678-361-6230
GMC 용자 켈리김 770-634-5646

김옥경 부동산
에밀리 김 Associate Broker
(C) 770-912-8282 (O) 404-843-2500

조앤리 부동산
주택·상가·렌트·관리
678.770.1136
E-mail: Realtorjoanne@gmail.com Broker Joann Lee (아네스)

오약국
470.223.4775
존스크릭 H-Mart 옆
약학박사 오민환 (파비아노) 10820 Abbots Bridge Rd, Johns Creek, GA 30097

이강연 CPA
미카엘
770-279-2770
info@mkcpa.com

TOP Lawn Maintenance
조경
잔디관리 전문(가정, 상업용)
404-966-1919 남기원(요한)

확실한 카이로프랙틱
더조은 척추
박찬규 (레오) 운동상해 (골프, 테니스 전문) 및 교통사고
678-473-0552
6630 McGinnis Ferry Road, Suite B, Johns Creek, GA 30097

리 장례식장 (귀넷)
Lee's Funeral Home & Crematory
이국자: 770-401-7616
귀넷: 770-622-2525

미소 치과
770-814-7533
4195 Pleasant Hill Rd, Ste#200
Duluth, GA 30096
남상우(시몬), 남수진(세실리아)

스와니 교정 치과
교정전문 김범수 (니콜라오) 678-482-9434
0% Interest | 주말 예약 가능 | 카톡 상담 (suwaneeartho)

PIWC Group Agency
장인욱 (베드로)
404-644-8658
자동차, 집, 사업체, 종업원 상해 보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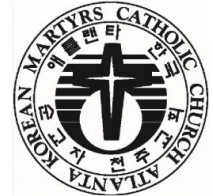
정승욱 변호사
(미카엘)
이민·입양·클로징·상법·유언
무료상담 전화 770.495.9994

명품 중식 레스토랑 만천홍
T. 770.454.5640
5953 Buford Hwy, Suite#105 Doraville, GA 30340

SB 건축 & 철공
House 내부수리 일체
플러밍, 덱크, 전기공사
용접, 철구조물 수리 제작
678-599-0200
방성호 크레센시오

GIFTS
성물점 GOLD-CROSSES-REPAIRS
770-614-1738
심자가, 성상, 성화, 묵주, 책, 금, 은, 주문제작, 신발수선, 티-셔츠프린팅
Suwanee Wal-mart 내 3255 Lawrenceville Suwanee Rd, #L

오즈냉동
에어콘, 히팅, 냉동
원동훈(유스티노)
770-910-5656



애틀랜타 한국 순교자 천주교회 Korean Martyrs Catholic Church of Atlanta

주소: 6003 Buford Hwy. N.E., Doraville, GA 30340 | 홈페이지: http://www.kmccga.com
E-mail: kmccga.office@gmail.com | Tel 770.455.1380 Toll free 888.222.9218 | Fax 770.455.4262

제2158호 2022년 7월 31일 | 연중 제18주일 | 발행인: 구동욱 미카엘 신부

† 미사 시간
일: 오전 8시 30분
오전 10시 30분
오후 12시 15분 (영어)
월: 없음
화: 정오 12시
수: 오후 7시 30분
목: 오후 7시 30분
금: 정오 12시
토: 오후 7시 (특전미사)
† 고백 성사
미사 시작 20분 전
† 혼인 성사
6개월 전까지 사무실로 신청
† 유아 세례 / 병자 성사
사무실로 연락
† 장례 미사
사무실로 연락
† 사무실 시간
일: 오전 7시-오후 3시
월: 휴무
화 ~ 토: 오전 10시-오후 6시
† 본당신부
구동욱 미카엘
Michael Tong-uk Ku, S. J.
micku@kakao.com
† 사목회장
남현석 요셉
Joseph Nam
770-827-9987
josephnam2011@gmail.com



네가 마련해 둔 것은 누구 차지가 되겠느냐?
< 루카 12,13-21 >

성 가 입당: 33 봉헌: 512/219 성체: 498/159 파견: 29
제 1 독서 코헬렛 1,2; 2,21-23 <그 모든 노고로 인간에게 남는 것이 무엇인가?>
화 답 송 ◎ 주님, 당신은 대대로 저희 안식처가 되셨나이다.
제 2 독서 콜로새서 3,1-5.9-11 <여러분은 저 위에 있는 것을 추구하십시오. 거기에는 그리스도께서 계십니다.>
복음환호송 ◎ 알렐루야.
○ 행복하여라,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 하늘 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 알렐루야.
복 음 루카 12,13-21 <네가 마련해 둔 것은 누구 차지가 되겠느냐?>
영 성 체 송 주님은 하늘에서 마련하신 빵을 저희에게 주셨나이다. 그 빵은 누구에게나 맛이 있어 한없는 기쁨을 주었나이다.

병 중에 계신 분들

- 김미영(인덕마리아)
- 김원봉(대건 안드레아)
- 민병숙(라파엘라)
- 박덕자(빅토리아)
- 박정자(데레사)
- 박평하 (요한)
- 유옥희(모니카)
- 이금숙(세실리아)
- 이기산 (스테파노)
- 이수진(브렌다노)
- 조갑득(마리아)
- 조경희(글라리아)
- 채종현(아오스딩)
- 최대일(프레드릭)
- 최순례(아나타시아)

특별한 지향을 위하여

2022년 세례를 받으신 분들과
건진을 받으신 분들을 위해

- 전례분과
조보현 404-422-0091
- 구역분과
김영경 770-676-8672
- 성모회
김진희 404-384-0278
- 대건 한국학교
노시현 678-677-3515
- 예비신자 교리반
나상숙 678-933-7313

선교분과

- 페루선교단
단장: 김용준 770-895-1000
- 레지오마리아애
귀애 단장: 왕희숙 352-359-4283
CLC
의장: 박철민 404-510-4604
- 성령기도회
회장: 최미영 404-918-0424
- 울뜨레아
간사: 이상용 551-265-5488
- 다락방기도회
회장: 서정화 404-547-4595
- M.E.
대표부부: 공석

117. 가치에 대한 성찰

올바른 희망이란 무엇일까 (4) 하느님과 희망을 선택하게 돕는 것

상처 치유하고 빛으로 걸어가도록 힘 북돋워 주어야

“사랑하는 사람들은 무덤이 아니라 내 기억 속에 묻혔으니 내가 죽지 않는 한 그들도 계속해서 살아 가리라는 사실을 나는 안다.”(니코스 카잔차키스 「영혼의 자서전」 중)

삶의 아픔들

정들었던 노동사목을 떠나 다른 소임지로 와서 “얼굴 좋아지셨네요?”라는 얘기를 들곤 합니다. 안부인사에 감사하지만 부끄럽기도 합니다. 미안한 마음이 많이 들기 때문입니다. 노동사목을 하며 많은 것을 배웠지만 감당하기 쉽지 않은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사제로서 세상을 좀 더 넓고 깊이 바라보는 기회였습니다. 노동 문제는 지극히 현실적인 이해관계의 문제이면서 삶을 지배하는 관심사입니다. 취업, 실업, 삶의 질과 행복, 성취와 자존감, 가족과 생계 이 모든 것이 얽혀 있고 그로 인해 파생되는 갈등과 대립이 개인과 사회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그리고 그 속의 일들을 복음적 시각으로 관찰하고 해석하고 교회의 가르침을 구현하고 사람과 사회가 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노동사목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많은 분들을 만났습니다. 그중 산업재해나 노동분규로 가족을 잃은 딱한 분들도 계셨습니다. 신자분들도 계셨는데 아들을 잃은 김혜영(사비나) 자매님이 계십니다. 안타깝게도 아들 프란치스코가 열악한 방송 제작 노동환경 속에서 고통을 받다가 2016년 10월 26일, 입사 9개월 만에 스스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희망과 일어섬

곧 5년여가 돼 가는 이 사건은 당시 가족과 회사 간 쉽지 않은 대화를 통해 사측의 공식적 사과와 제작환경 개선에 대한 약속 등을 골자로 종료됐습니다. 그러나 황망한 사고로 가족을 잃은 슬픔은 무엇으로도 위로가 되지 못했습니다. 물론 사랑하는 이를 잃고 슬퍼하는 분들, 고통받는 분들은 참 많습니다. 그런 분들에게는 무엇이 희망일까? 무엇이 희망이라고 이야기해 줄 수 있을까요? 고통받는 읍에게 건넨 친구들의 위로가 하느님께 야단을 맞는 것을 보니 설부른 이야기가 오히려 독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읍기 42,7-9) 그런데 읍기의 결말은 읍의 회복으로 매듭되는데 어떻게 모든 것을 잃은 읍이 회복했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읍은 분명히 일어섰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렇게 시련에서 일어난 읍을 볼 수 있습니다. 아들을 잃은 사비나 자매님도 그런 읍이었습다. “저는 아들 한빛을 가슴에 묻지 않고 부활시킬 것입니다. 한빛의 죽음이 결코 헛되지 않도록 한빛이 이 사회에 던지고자 했던 메시지가 실현될 때까지 엄마로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께 진실을 밝히는 데 함께 해 달라고 도와 달라고 간절히 부탁드립니다.”(2017년 4월 18일 이한빛 PD 추모제 중) 저는 이를 통해 부활을 체험의 언어라 이야기하듯, 희망도 체험의 언어라는 것을 절감했습니다.

희망은 길처럼

오랜만에 사비나 자매님을 뵈었습니다. 시간이 지났지만, 여전히 아픔이 가시지 않았음을 직감했습니다. 부모는 자식을 먼저 보내면 그를 가슴에 묻는다더니 저도 마음이 애잔했습니다. 그러나 달라진 것은 뭔가를 찾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희망일 수도, 하느님일 수도 있는 뭔가를 말입니다. 바로 사랑하는 아들 때문이겠지요.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용기를 내어 절망과 포기 아닌 희망과 삶의 길을 선택한 것입니다. 저는 그것이 참된 희망이라 여겨졌습니다. 어쩌면 삶은 아픔이나 슬픔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기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슬픔에 잠식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딛고 일어서는 것이 중요하고, 그 슬픔을 듣고 헤아려 주는 역할이 중요하겠지요.

「간추린 사회교리」는 교회 공동체의 여정이 역사의 한복판에 있고(60항) 희망을 잃은 이들을 도와야 한다고 합니다.(69항) 분명 희망의 근원은 하느님이십니다. 그러나 상처와 아픔으로 인해 하느님과 희망을 포기한다는 게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너와 내가 있는 것이 아닐까요? 희망을 찾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서, 잠시라도 희망을 찾는 그 길을 함께 걸어주기 위해서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서는 네 형제들에게 힘을 북돋워 주라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나 봅니다.(루카 22,32) 희망은 함께 만들 때 더 쉽게 만들어집니다.

“구원의 봉사자인 교회는 추상적 차원이나 단지 영적 차원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살아가는 세상과 역사의 구체적인 상황 안에 있다. 그 안에서 인간은 하느님의 사랑을 만나고 하느님 계획에 협력하도록 부름받는다.”(「간추린 사회교리」 60항)

[가톨릭신문, 2021년 5월 2일, 이주형 신부(서울대학교사목국 성서못자리)]



대건한국학교 2022-2023학년도 가을학기 등록안내



모집대상: Pre-K(만 4세)-고등학생, 성인
수업기간: 2022년 8월 13일-12월 10일 (16주간)
수업시간: 매주 토요일 09:15-12:30
수업내용: 한국어, 한국문화, 한국어사
주요교내행사: 추석/설날잔치, 가을운동회
등록금: 한 자녀 \$230/두 자녀 \$420/세 자녀 \$590
(신입생, 편입생 Registration Fee 한명당 \$10 별도)
Payable to: KMCC Daegon Korean School



등록장소: 애틀랜타 한국순교자 천주교회 (교무실 & 성당 사무실)
등록원서다운: <http://kmccga.com/xe/office> (우편접수가능)
연락처: TEL 770-455-1380 FAX 770-455-4262
노시현 (내오미시아) 678-677-3515
Email: KMCCGA.DaegonKoreanSchool@gmail.com

SO GOOD (Bridal & Beauty)



Duluth 매장 : 678.474.4979
3480 Steve Reynolds Blvd
Duluth, GA 30096
@sogoodbridal
www.sogoodbb.com

* 청소년기금마련을 위한 Amazon 스마일 펀드레이징 캠페인 안내
아마존 스마일 프로그램을 이용하시면, 구입금액의 0.5%를 아마존이 본당에 도네이션하는 프로그램입니다.

* 이용방법

- 1) smile.amazon.com 을 이용하여 아마존스마일로 들어갑니다.
- 2) Choose Charities 에서 Korean Martyrs Catholic Church of Atlanta 를 지정합니다.
(주의: 비슷한 이름의 성당이 있으니, Doraville, GA에 있는 성당을 지정하셔야 합니다.)
- 3) 계속 smile.amazon.com 을 이용해 shopping 합니다.

비즈니스 익스펜스를 아마존 스마일과 연계할 경우, 본당에 큰 도움이 됩니다.
문의: 박형근 (770-861-2553)

제 16차 세계 주교 시노드 (Synod)에 관한 공지

지난 10월 10일 프란치스코 교황님의 선포로 세계 주교 시노드가 개막되었고, 이에 따라 애틀랜타 대교구 차원의 시노드 또한 10월 17일 하트메이 대주교님의 선포로 시작되었습니다.

기도(Prayer)와 경청(Listening)과 분별(Discernment)에 기반을 두고 ‘함께 걷는다’ 라는 시노드 정신을 친교(Communion)와 참여(Participation)와 사명(Mission)이라는 주제로 교회에 구현하고자 하는 이번 16차 시노드를 통해 교황님께서서는 가톨릭 교회가 제삼천년기 교회 본질을 성찰하며 쇄신의 길로 지속적으로 나아가도록 초대하십니다.

이번 시노드가 성공적이고 많은 열매를 맺도록 교우님들의 많은 기도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차후에 있을 예정인 공청회나 설문조사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시노드 기도문과 시노드에 대한 한국어 및 영어 자료는 성당 웹사이트(kmccga.com)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한국 순교자 성당 단체 모임 안내

프로그램 (요일)	시간	장소	담당자 문의처
한국천주교회사 (화)	1pm	115호	지혜정(770-380-1327)
매드민튼모임 (화)	7pm	친교실	김상국(404-353-0358)
민요반 (화)	10am	소성당	여복순(770-910-0145)
매드민튼모임 (금)	7pm	친교실	김상국(404-353-0358)
라인댄스 (금)	10:30am	친교실	송희빈(404-273-3533)
안나합창단 (금)	1pm	성가대실	문병호(404-543-2921)
피아노 교습반 (금)	1:15pm	112호	김영혜(770-862-4223)
원예반 (일)	12 pm	113호	서미영(404-610-0057)

*모임에 대한 문의가 있으신 분들은 모임 담당자에게 문의 하시 바랍니다.

2022년 AA 기금 납부 현황 (7월 24일 현재)

교구 할당액: \$54,300

누계 약정액: \$22,200

금주 납부액: \$150

누계 납부액: \$42,831

달성율: 78.9%

2022 AA 기금 금주 납부자: 6명

강규상 김원봉 배광욱 서재욱 소종선 장춘자

< 사목회 Workshop >

7월 22일(금) 오후 5시부터 23일(토) 오후 8시까지 본당 주임 신부님과 신임 사목위원들의 Workshop이 있었습니다.



< 본당 실내 마스크 착용 > Covid-19 확산에 따른 위험도 증가로 인해 한시적으로 미사를 포함한 모든 교회 공동체 활동 중 실내 행사는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착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CLC 소공동체 모임 >

7월 22일(금) 오전 10시 30분부터 CLC 모임이 있었습니다.



< 주일 영어 미사 >

7월 24일(일) 오후 12시 15분 미사는 Fr. James Akpan의 주례로 집전되었습니다. 주일학교 개학은 8월 21일(일)입니다.



선물 위에서

< 루카 12,13-21 >

배영길 베드로 신부

마치, 철없는
아이처럼
조르기만 했습니다.

마치, 받은 것 하나
없다는 듯,
청하기만 했습니다.

선물 위에 올라,
감사할 줄 모르고.
나눌 생각도 없이.



[하느님 앞에서 부유한 사람]

지난 22일 금요일에 야구경기를 보러 갔다. 애틀랜타 브레이브스와 LA 에인절스와의 경기였다. 6회까지 파분한 투수전이 이어졌다. 특히 에인절스의 투수인 오타니 선수는 6회가 끝날때까지 60여개의 공으로 브레이브스 타선을 잠재웠다. 7회들어서도 오타니 선수가 투구를 했는데, 애틀랜타 선수들이 오타니 선수의 볼에 익숙해졌는지 홈런과 안타가 이어졌다. 관중들은 흥분했고, 이전까지 압도해왔던 투구가 어디로 갔는지 오타니 선수는 많은 점수를 내주고 마운드를 내려갔다. 오타니 선수는 한순간에 무너진 투구에 많이 아쉬워 했을 것 같다. 한편, 금요일 경기 끝나면 늘 하는 불꽃놀이는 애틀랜타의 압도적인 승리로 인해 더욱 화려하고 멋있게 느껴졌다. 그런데, 다른 한편으로, 짧은 순간 하늘을 수놓고 사라지는 불꽃들을 볼 때마다 느끼는 아쉬움이 오타니 투수가 느꼈을 아쉬움과 중첩되며 마음 한편에서 잔잔한 파랑이 일었다. 나아가, 우리 삶도 저 불꽃의 하나와 비슷한 것 같았다. 연료를 태우며 하늘로 열심히 올라가 짧은 순간 반짝이다 사라지는 폭죽과 긴 청소년 시기를 거친후, 중장년을 거쳐 노년으로 이르는 우리의 삶이 시간의 스케일만 다를 뿐 매우 비슷하다고 느껴졌다.



오늘 복음 산책

네가 마련해 둔 것은 누구 차지가 되겠느냐?
<루카 12,13-21>

아침에 돌아왔다 저녁에 시드는 풀과 같고 또한 잠깐 빛을 발하는 폭죽 같은 물질적인 것들에 우리의 전부를 바치는 것에 대해 코헬렛은 그 모든 것이 허무라고 가르치고 있다. 그러면서 코헬렛은 짧은 날에 우리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하며 하느님을 경외하고 그분의 계명을 지키라고 말하고 있다. 한편 사도 바오로는 위에 있는 것을 생각하고 추구하며 땅에 있는 것은 생각하지 말라고 권고하고 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서는 세상의 재화를 모으기 보다 하느님 앞에서 부유한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신다. 하느님 앞에서 부유하다는 것이 무엇일까? 성당에 잘 다니며 미사에 빠짐없이 참여하는 것, 봉헌을 충실히 하는 것, 성경공부를 열심히 하는 것, 하느님을 경외하고 계명을 잘 지키며 하느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 가족을 사랑하고 성실히 맡겨진 소명을 수행하는 것. 이러한 것들을 말할까? 그럴수도 있겠으나 무언가 빠져있는 것 같다. 그런 많은 행위를 하는 것이 하느님 앞에서 부

유한 사람을 만든다면 그런 행위와 계명들에 철두철미한 바리사이들을 주님께서는 왜 책망하셨을까?
이 질문을 묵상하며 제2독서에 있는 바오로 사도의 “새 인간은 자기를 창조하신 분의 모상에 따라 끊임 없이 새로워지면서 참지식에 이르게 됩니다” 라는 말씀이 마음을 울렸다. 여러가지 신앙적 행위를 함은 그런 행위를 통하여 내가 하느님 앞에서 인정받고 구원을 받기 위함이라고 착각을 하고 있었던 것은 아니었던가 반문하게 되었다. 신앙적 행위는 나를 끊임없이 새롭게하고 참지식에 이르게 하는 하나의 길일 뿐 궁극적인 목표가 아님을 종종 잊고 있었던 것 같다. 때로는 많은 신앙적 행위들에 지쳐 본질을 생각할 겨를조차 없었지는 않았는지 ... 하느님 앞에서 부유함은 신앙적 행위를 통한 단련을 통하여 새로움과 참지식을 키워나감으로써 나 자신의 인격의 성장과 성숙을 통해 채울 수 있는 것은 아닐까 묵상하며, 행위를 뛰어넘는 더 소중한 것을 잊지 말고 풍성하게 채워나갈 수 있도록 주님의 인도와 자비를 기도하였다.

성찰
하느님 앞에서 부유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묵상하며 나의 영생의 공간에 무엇이 얼마나 채워져 있는지 묵상해 봅시다.

우리들의 정성 (2022년 7월 24일)

본당 미사참례 인원		총 375명	
특전 미사	39명	오전 8시 30분	100명
오전 10시 30분	200명	영어 미사	36명
성물방	\$ 81.00	감사헌금	\$ -
교무금	\$ 4,045.00	주일헌금	\$ 3,949.00
온라인 교무금	\$ 50.00	온라인 주일헌금	\$ 30.00

교무금 봉헌 하신 분 (2022년 7월 24일)

강규상 (7)	서영규 (7~8)
강성태 (7~9)	서재욱 (7)
곽성숙 (7)	소종선 (7)
김세경 (6)	양희영 (7)
김영배 (7~9)	오현정 (6~9)
김영혜 (7)	왕정자 (5~6)
김용준 (7)	유경애 (6~7)
김원봉 (8)	윤기태 (7)
김중욱 (7)	이광자 (7)
김중환 (7)	이순섭 (6)
나영숙 (7)	이순섭 (7)
문명재 (7)	이종상 (7)
박남철 (7)	임혜수 (7)
박재영 (7)	진성수 (1~12)
박평하 (7)	

금주 후원금

청소년 기금	-
감사헌금	-
Angela Fund	-

본당공동체 봉사자들을 위한 성서영성독서회

*7월, 8월 2개월 동안은 강의를 휴강하며 9월부터 다시 강의를 재개합니다.
문의: 사무실 (770-455-13890)

전례 봉사

날짜	해설	독서	복사
7/30 (토) 오후 7:00	윤결	이재돈 곽예원	-
7/31 (일) 오전 8:30	이숙자	최인영 남송은	김태훈 이다은
7/31 (일) 오전 10:30	이경환	고근배 고숙영	박시현 김매튜 박시은
7/31 (일) 오후 12:15	Gabe Choi	Chris Shin	김아론 양다해
8/6 (토) 오후 5:30	이지연	최석인 최지이	-
8/7 (일) 오전 8:30	이진화	서상희 서정원	안상우 도렉스
8/7 (일) 오전 10:30	박줄리	이국진 이정란	김태훈 남소호 양다현
8/7 (일) 오후 12:15	Gabe Choi	Chris Shin	최예은 최지오

복사단 신입 단원 모집

대상: 첫영성체를 한 8학년까지 주일 학교 학생들
문의: 소 루도비꼬 (404-434-8163)

본당 캘린더

8월 6일 (토)	성모 신심 미사
8월 7일 (일)	성 루가 의료 봉사회 진료
8월 7일 (일)	Bridge Mass
8월 14일 (일)	꾸리아 월례 회의

감사합니다

◆지난 7월 28일 故 소근화 (토마스 아퀴나스)님의 연도 및 장례미사에 참석해주신 모든 교우분들께 감사드립니다.

◆8월 6일 (토) 특전 미사부터 오후 5시 30분에 특전 미사가 시작되오니 교우분 들은 미사 시간을 숙지바랍니다

성 루가 의료 봉사회 진료 안내

일시: 8월 7일 (일)
장소: 소성당
진료시간: 오후 12시 30분 ~ 오후 2시 30분
진료 과목
내과: 지승남 **한방과:** 양경환
비뇨기과: 전홍
▶앞으로 매월 첫째 주 일요일에 정기적으로 진료를 계속하게 되었습니다.
▶피검사는 매월 실시하며 메디케어, 메 데케이드가 있으신 분들도 무료로 참여 하실 수 있습니다.
▶진료시 당뇨 검사를 해 드리오니 6시간 공복을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성 루가의료 봉사회 자원 봉사자와 진료를 해주실 의사 선생님들을 모시고자 하오니 적극 지원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문의: 지승남 (470-747-2000)
서병익 (706-583-4096)

KMCC Bridge Mass

일시: 8월 7일 (일), 오후 4시
장소: KMCC 대성전
대상: Young Adult (영어권 및 한국어권, 청년들과 기혼자 모두 참가 요망)
▶미사 후 친교실에서 식사를 제공 합니다.
문의: 도효준 (404-939-3646)

행사 및 모임 안내

- ◆Alpharetta-1 구역 모임
일시: 7월 31일 (일), 오전 11시 45분
장소: 112호
문의: 최준태 (404-918-9763)
- ◆꾸리아 월례 회의
일시: 8월 14일 (일), 오후 12시 30분
장소: 소성당
문의: 왕미카엘라 (352-359-4283)
- ◆성서 봉사자 회의
일시: 8월 14일 (일), 오전 12시
장소: 112호
문의: 이혁륜 (404-518-7373)

◆교구 2차헌금 (Archdiocese for the Military Services, USA)이 오늘 7월 30일 (토)/31일 (일)에 있습니다.

2022-2023 예비자 교리반 안내

수업일정: 2022년 9월 11일~ 2023년 4월 9일 / 매주일 오전 9시
접수: 사무실
접수마감: 2022년 8월 31일
문의: 나상숙 (678-933-7313)
서미영 (404-610-0057)

성당 학교 소식

- ◆주일 학교 등록 안내
개학: 8월 21일 (일), 10:30am
대상: Pre-K ~ 12학년
문의: 김시윤 루피나
kmccga.youngadult@gmail.com
- ◆토요 대건 한국학교
개학: 8월 13일 (토)
문의: 노시현 (678-677-3515)

본당 코로나-19 방역지침 변경 안내

2022년 7월 24일 (일) 부터 적용
Covid-19 위험도 증가에 따른 유기적 대응의 일환으로 본당 방역 지침을 아래와 같이 한시적으로 수정함을 알려드립니다.

[신규변경사항]

- 미사를 포함한 모든 교회 공동체 활동 중 실내 행사는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착용합니다.
- 다른 신자분들의 생각과 의견을 존중하고 배려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공통사항]

- 미사중 노래와 응송은 계속 하지 않습니다.
- 미사중 타 교우와의 신체접촉(주님의 기도, 평화의 인사 중)은 계속 중지해 주십시오.
- 미사 전후 본당 전체에 대한 방역소독은 계속 실시합니다.
- 고열(99도이상)과 기침등 증상이 있는 교우는 온라인 미사를 참여하셔야 합니다.
- 본인, 가족 및 직장동료등이 확진 판정을 받은 경우, 테스트 음성 결과가 나올때까지 온라인 미사에 참여하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비교]

노인 아파트의 버스 운행은 계속됩니다. 해당 아파트에 거주 하시는 분들은 시간을 지켜서 승차해 주시기 바랍니다.

애틀랜타 한국 순교자 천주교회 제26대 사목회

【 본당 알림 】

- ◆성가대 반주자를 모집합니다.
문의: 김진용 (678-478-7830)
- ◆교무금을 내실 때 월 포시를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 ◆매주 목요일 저녁 미사 후에 성시간이 있습니다.
- ◆매월 첫째 주 토요일 낮 12시에 성모 신심 미사가 봉헌됩니다.
- ◆장례 미사 및 연도 요청은 연령회에 필히 연락하길 바랍니다.
문의: 이수진 브렌다노 (404-933-8233)
- ◆혼인성사를 요청하는 경우 6개월 전에 필히 사무실로 신청하길 바랍니다.
문의: 사무실 (770-455-1380)
- ◆2022-2023 회계연도 교무금 약정서를 사무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2022년 AA기금 약정도 계속 성당 사무실에서 받고 있사오니 약정 부탁드립니다.
- ◆가정에서 보관 중인 연도책은 성당 사무실로 반납바랍니다.
- ◆상반기 후보 광고비를 정산해 주시기 바랍니다.
- ◆후보에 광고를 게재하실 분은 사무실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 ◆본당 성물방 시간: 매주 일요일 오전 9:30~오후1:00
(예약 주문/상담가능)
문의: 사무실 (770-455-1380)